

깨끗한 이미지에 확장성 높아 ... 지지층 충성도 낮은게 흠

▷ 통해 후보의 장단점을 살피고 공약, 살아온 길을 정밀 분석했다. 후보들의 장·단점은 동전의 양면처럼 극복하면 오히려 단·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후보들이 어떻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할 것인지 선거운동 기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SWOT 분석

“국민이 이긴다”



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 1 튼튼한 자강 안보와 한반도 비핵화
- 2 첨단 국방력 건설, 한·미 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추진
- 3 교육·과학기술·창업혁신
- 4 교육부 폐지, '5(초)5(중)2(직업학교)4(대학)' 체제 학제 개편
- 5 정경 유착 및 불공정 거래 근절
- 6 비리 기업인 사면 제한, 재벌의 문어발 확장 금지
- 7 임금 격차와 고용 불안 없는 미래 일자리
- 8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2년간 1200만원 지원
- 9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 10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 11 격차 해소 및 사회 안전망 완비
- 12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13 '재난 제로 사회' 구현
- 14 재해·재난 예방 체계 구축, 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 15 성평등 대한민국
- 16 여성 폭력 피해자 예산 확대, 아동 폭력 발견 시스템 강화
- 17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 18 미세먼지 환경 기준 선진국 수준 강화, 신규 원전 금지
- 19 스마트 농어촌
- 20 먹거리 안전·위생 관리 시스템 구축, 식량 자급률 향상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제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첫날인 지난 17일 광주를 방문해 유세를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문성·차별성 뚜렷

중도 성향 통합 리더

▷Strength(강점)=의사와 벤처기업인 출신으로서 지니고 있는 전문성과 차별성은 어느 후보와 견주어도 최상의 조건이다. 이는 그의 깨끗한 이미지와 함께 5년 전 '안철수 바람'의 주요인이 됐고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 화두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이미지이기도 하다.

또 안 후보는 야당 정치인들의 주요 기반인 운동권 출신이 아니어서 이념적으로 중도적 성향을 느끼게 한다는 것도 강점이다.

자신을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규정해온 만큼 좌우를 아우르는 균형있는 지도자로 비칠 수 있어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인 '통합'이 리더로 연상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보수층의 지지로 받으면서 10% 전후를 기록하던 지지율이 보름여 만에 3배 이상 오르는 확장성을 보여줬다.

새정치 이미지 약화

젊은층 관심 멀어져

▷Weakness(약점)=5년 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안철수 신드롬'이 약해졌다는 게 안 후보로선 뼈 아픈다.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새정치' 이미지는 남아 있지만 젊은이의 관심에서는 멀어진 듯하다.

또 그의 지지층 상당수가 반문(반문재인) 세력이라는 점이 약점이다. 즉, 지지층의 충성도가 낮아 지지성향을 바꿀 경우 지지율이 급락할 수 있다.

안 후보가 행정 분야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어보지 않아서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것도 약점이다.

무엇보다 자기 대통령은 충분한 시간없이 당선 후 바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행정 경험이 없는 안 후보가 국정공백을 제대로 메울 수 있느냐는 국민들의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보수후보 지리멸렬로 기회

TK서 높은 지지율 주목

▷Opportunity(기회)=반문 정세가 여전하고 보수 후보가 지리멸렬한 것이 안 후보에게 최대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반문 정서, 나아가 보수층의 '문재인 공포증'은 안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 원인이다.

여기에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 보수 후보 지지율은 합쳐봐도 채 10%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수 후보들의 약세가 안 후보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안 후보가 반문 세력의 대표주자가 된 것이다.

특히 보수 야성인 대구·경북지역(TK)에서조차 안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선거 판도를 결정할 수 있는 주안점이다. 안 후보의 통합 이미지와 맞물려 작용할 경우, 지역성향의 기존 투표모델을 뛰어 넘는 새로운 투표 모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보수층 빠져 나갈지 우려

지지율 상승 주춤 걸림돌

▷Threat(위협)=지난 12일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선전한 것은 안 후보에게 최대의 위협 요소다. 안 후보를 지지한 보수층이 보수 대선후보에게서 가능성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에게 물렸던 지지층이 순식간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이 보수층의 회귀가 실현될 경우,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안 후보의 지지율은 '맥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안 후보의 최근 지지율 상승이 주춤한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다시 문재인 후보에게 처지는 상황이 지속한다면 안 후보에게 쏠렸던 호남 유권자의 지지는 문 후보에게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또 안 후보의 집권 노력을 '박지원 대표 상왕' 논란 등 호남 중진들의 권력욕으로 연결하려는 보수층의 전략도 골칫거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컴퓨터 백신 개발 ... 지난해 국민의당 창당

걸어온 길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에게 빼놓을 수 없는 수식어는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V1'이다. 그는 지난 1988년 서울대 의대 박사과정 중 개발, 이를 무료로 배포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뭔지도 모를 시기여서 안철수의 백신 프로그램은 세간의 화제가 됐다.

안 후보는 이처럼 청년·중년 시절을 의사에서 컴퓨터 백신프로그램과 CEO(최고경영자)를 넘나들며 활동했다. 그러던 그는 귀국 직후 미국 유학시절에 들은 강연에 착안해 정춘콘서트를 기획했고 2009년 처음 시도했다. 당시 시골의사로 알려진 박경철 원장과 함께 전국 순회콘서트를 이어갔다. 그는 이 강연회에서 젊은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의사, 프로그래머, 경영인에서 이제 정치인 안철수로 제2의 삶을 살게 됐다.

그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안철수 이름이 거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가 싶었다. 하지만, 안 후보는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며 물러났다.

그런 그가 2012년에는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젊은층을 중심으로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을 일으켰지만, 여당의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안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2013년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치 재개를 했지만, 정치경험이 없는 탓에 많은 우려곡절을 겪었다. 신당 창당을 준비하던 그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했다가 문재인 전 대표와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초 민주당을 나온 뒤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20대 총선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원내교섭단체로 국민의당을 자리매김시켰고, 이제는 정치개혁을 위해 다시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안 후보와 호남의 인연도 각별하다. 아내 김미경(54) 서울대 의대 교수의 고향이 여수여서 '호남 사위'로 언급되기도 하고 있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도 호남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내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19대 대선 당 대선주자로 나서게 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65 since 1952

아침밥과 건강

밥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01

아침밥은 두뇌회전에 필요한 당질을 공급하여 **창의력, 기억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02

매일 먹는 아침밥은 오전에 뇌활동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집중력과 사고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03

아침밥은 **다이어트**의 첫걸음이며, 아침밥 먹는 습관은 **평생건강**을 책임집니다.

가족의 건강!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는 밥으로 건강을 지킵시다.